



지준율 인상,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와 해약률 증가 야기

왕양비 연구원

■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로 인해 올 2/4분기 방카슈랑스 매출이 1/4분기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, 지준율 인상으로 은행 창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해약률도 높아짐.

- 지난해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불허하고, 각 은행 지점에 대해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올 1/4분기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5.3% 급감하였고, 2/4분기에도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.
- 이와 더불어 올해 들어 지준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보다 자사 금융상품에 더 집중하여 판매하는 것도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.
- 한편, 은행이 예금 흡수를 위해 출시한 단기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고 7%에 이른 반면, 투자형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.
 - 현재 중국의 1년 정기 예금금리는 3.5%이나, 올 상반기 전체 보험산업의 평균 자금운용 수익률은 2.1%에 불과함.
- 이에 따라 상반기 중국 주요도시의 방카슈랑스 상품 해약률은 지난해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0%까지 치솟은 가운데, 설계사의 경우 보험가입자에 대한 1대1 서비스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해약률 수준을 유지함.

- 또한,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‘생명보험 업무에 관한 규정’에서 보험회사의 유예 기간에 대한 의무준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하반기 투자형 보험상품 해약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동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구입 유예기간인 보험 가입 후 10일 이내에 무조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동 규정이 이미 정식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설계사들이 아직까지 보험가입자에게 유예기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유예기간내의 계약 해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.
- 생명보험회사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여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게 될 경우, 올 하반기 해약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일부 보장성 보험상품과 수익률이 낮은 투자형 보험상품에서 해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.

(베이징 상보 7/15, 중국 증권보 7/20 등)